

소외되고 일그러진 세상에 대한 기억을 찾아서* - 루이스 세벨베다의 작품을 중심으로 -

유왕무
배재대학교

유왕무(2020), 「소외되고 일그러진 세상에 대한 기억을 찾아서-루이스 세벨베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2), 107-131.

초록 루이스 세벨베다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칠레 정치와 인권,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유네스코와 그린피스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인류 전체의 참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역사적 현실을 다루면서도 현대의 보편적 정치·사회문제와 연결시킨다. 두 편의 여행기 『소외된 이야기』와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인물들과 그들과 관계된 일화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역사적 인물보다는 '이름 없는 영웅들'과 얽힌 일화를 기억하며 소환한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수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은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다. 세벨베다는 이들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한다. 그는 망각을 두려워한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 작품은 〈소외되고 일그러진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라는 의미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작가가 바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 저 너머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미래의 건설을 꿈꾸고 있다.

핵심어 루이스 세벨베다, 『소외된 이야기』,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 기억, 저항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5655)

하다가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떠돌며 망명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체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빼노체프 군부 독재시절 온갖 정신적 육체적 탄압에 시달렸던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애국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존경, 안타까움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소외된 이야기』와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는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세뿔베다는 조국 칠레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와 유럽의 역사까지도 기억에서 소환한다. 세뿔베다가 역사를 중시하는 작가임을 다시 한 번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는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늘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라면 모든 역사를 알아야 한다. 아직 희생자들의 역사조차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백 퍼센트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역사를 잘 아는 사회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희생자들은 역사를 아는 것에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정의를 원할 뿐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정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사실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¹⁾

역사를 바로 알아야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건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도 역사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주장이다.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에 대한 ‘기억’이다. 역사적 사실은 기억을 통해 후세에 알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세뿔베다는 자신이 역사적 현실에 대한 기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치중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도 나처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²⁾

1) *El País*. Madrid. 2009.04.03. Entrevista con Luis Sepúlveda.

https://elpais.com/cultura/2009/04/03/actualidad/1238770800_1238775841.html

2) Ibid.

또 하나의 공통점은, 패배자들에 대한 기억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일그러진 정치환경과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다. 세뽀베다는 패배자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작가의 임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좋은 소설의 이야기는 패배자들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승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은 잊힌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³⁾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고의 연구 대상인 두 작품 『소외된 이야기』와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는 작가의 소명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소외된 이야기』와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를 통해 세뽀베다가 만난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으며,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역경을 헤쳐나간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실과 그들의 삶이 전하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세뽀베다가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전망은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머리말에 이은 II장에서는 뒤틀린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되새겨본다. III장에서는 칠레의 군부독재로 인해 일그러진 어두운 역사에 대한 기억과 저항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IV장과 맺음말에서는 세뽀베다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택한 글쓰기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두 작품을 관통하는 의미 있는 구조(estructura significativa)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전망을 제시하는지 파악해 볼 것이다.

II. 잊혀가는 인물과 삶의 의미에 대한 기억

세뽀베다는 폭력의 역사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감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망각의 저편에서 끌어낸다. 세뽀베다가 잊힌 인물들에 대해 기

3) Ibid.

억하기로 결심한 것은 독일의 베르겐 벨젠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하고 나서다. 그곳은 네덜란드의 어린 소녀 안네 프랑크가 사망한 곳이다. 그는 그곳에서 안네 프랑크의 무덤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육체적 죽음 외에 “망각과 익명이라는 또 다른 죽음”⁴⁾을 선사했음에 분노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돌맹이에 새겨진 문구를 발견한다. <나는 여기에 있었고, 아무도 내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HM, 8)라는 문구다. 뾰족한 연장을 이용해서 새긴 것으로 수용소 한 구석에 있었다. 처절한 절규의 기록이었다. 역사의 광풍에 밀려갔지만 이름도 존재도 기억되지 않았던 어느 무명씨의 외침의 소리였다.

세뿔베다는 이 글귀를 보는 순간 그 어느 예술 작품이나 어느 문학 작품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도 없었지만 그리 중요하지도 않았다. 글귀가 가진 힘은 너무 강렬해서 <잊지 말라, 용서하지도 말라>⁵⁾라는 세뿔베다의 다짐을 더 강하게 만든다. 결국 이런 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세뿔베다는 마침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수치의 역사’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세뿔베다에게 이야기하기는 곧 글을 쓰는 것이다. 글쓰기가 세뿔베다의 기억법인 것이다. 잊혀가는 수많은 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는 글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소외된 이야기』이며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이다.

실제로 세뿔베다가 잊히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은 1997년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히혼에 정착하면서부터다. 그들로부터 인생의 가치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스투리아스 지방은 세뿔베다가 “아스투리아스보다 더 소외된 곳은 없다. 아스투리아스보다 더 고통

4) Luis Sepúlveda. *Historias Marginales*. Madrid: Editorial Seix Barral, S.A. 2000. p. 7.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본문에 작품명 약어(HM)와 해당쪽수만 표시할 것임.

5) Luis Sepúlveda. *Historias de aquí y allá*. Barcelona: La otra orilla. 2010. p. 42.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본문에 작품명 약어(HAA)와 해당쪽수만 표시할 것임.

받는 지역은 없다”(HM, 121)고 말할 정도로 외진 곳이다. 그래서 세뿔베다는 아스투리아스가 “소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우리, 소외된 사람들은 늘 환영받는 곳”(HM, 121)이며, “이 세상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HM, 121)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히혼은 스페인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광산지역으로 세계화의 물결 때문에 전통을 잃어버린 곳이다. 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불한 곳이다. 그래서 세뿔베다는 히혼 사람들을 “짓밟힌 자들이다. 잃어도 되겠느냐는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잃어버린 사람들”(HM, 122)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히혼 사람들은 당당하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서슬이 시퍼렇던 프랑꼬 독재 하에서도 칠레 석탄 광부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용기를 보였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시 모스타르와 사라예보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원조물자를 보낸 것도 히혼 사람들이다. ‘의지’와 ‘저항’이라는 가치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당당하게 분노하면서 의지와 저항을 표출한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HM, 122)라는 단순한 명제 하에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이 ‘우리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짓밟힌 자’들이다. 히혼 사람들은 “보상이나 인정은 바라지 않은 채, 자기네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준 사람들”(HM, 122)이다. 1934년 파시스트에 대해 아스투리아스 인들이 보여준 항쟁의식은 의미가 크다. 패배한 민중이 승자들보다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그로 인해 “영광스러운 소외”도 존재함을 알려주었고, “인생은 작은 승리와 큰 패배의 끝없는 되풀이”(HM, 123)라는 사실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는다.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노래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삶의 예찬으로 귀결된다.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희생자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보스 정치를 산산조각 나게 하고, 미래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래를 믿고, 노래하고, 마시고, 책을 읽고, 일하고, 생각하게 하는 세계가 펼쳐진다.(HM, 122)

그들은 소외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안다. “백파이프 선율을 듣고 압착기에 시드라가 있는 한 행복하다”(HM, 123)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세뿔베다는 그들의 순수한 삶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한다. 역사에 남을 일이 없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망각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세뿔베다가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 부자, 유명 인사들이 아니다. 가난하고, 힘 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대리석 동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까바토리’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까바토리는 이탈리아의 대리석 채석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가리킨다.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예술작품들은 대부분 까바토리의 손을 거쳐 완성된다. 어느 날 베에트라산따에서 진행된 까바토리 두 명의 죽음을 기리는 행사에 참가한 세뿔베다는 예술가와 까바토리의 시각 차이를 목격한다. 채석장에서 굴러 떨어진 대리석 덩어리에 깔려 숨진 까바토리에 대해 예술가는 그들이 예술을 위해 죽은 순교자라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한 까바토리는 “그들은 안전장치 부족으로 죽은 것이고,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봉급 때문에 죽은 것”(HM, 71)이라고 진실을 토로한다. 이 순간 세뿔베다는 “단순한 사람들의 진실이 그 어느 예술적 진실보다 더 가치가 있다”(HM, 71)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부탁한다.

독자들이여, 언젠가 당신이 까라라 지역의 대리석으로 조각된 동상 앞에 마주 서게 된다면 베에트라산따의 까바토리와 대리석 가공업자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존엄한 익명성에 경의를 표해주시 바랍니다.(HM, 71)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루기까지 기여한 사람들도 기억하자는 것이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소시민의 삶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자신이 소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추구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도 있다. 세뿔베다가 기억하고 있는 이 런 인물 중 한 명이 칠레의 수도 수리공 마에스트로 꼬레아다.

마에스트로 꼬레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가스피티였다. 칠

레에서는 수도 수리공을 ‘가스피터’라고 부른다. 그는 동네의 모든 것을 수리하는 만능 해결사였다. 그는 <죽음만 빼고는 모두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스스로의 윤리 강령을 읊고 다녔다. 그는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으나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부자동네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 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부자 동네에서 ‘주인 나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싫었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 기술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는 가스피터는 어느 날 암 말기 진단을 받는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여자 기능공들을 모아 자기의 모든 기술을 전수해 준다. 세뽀베다는 “나는 부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전이든 지금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HM, 136)고 밝히고 있는데, 마에스트로 꼬레아가 바로 그런 생각의 소유자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대해서는 늘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다. 그래서 마에스트로 꼬레아의 여제자들이 가난한 동네를 활보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다. 세뽀베다는 그 속에서 “절대 녹슬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위대하고 단결된 진실”(HM, 136)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단결된 진실’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자신의 일신보다는 타인과 공동체의 삶의 향상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뽀베다가 비달 산체스를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비달 산체스는 세뽀베다가 망명생활을 시작하려던 차에 만난 사람으로, 에콰도르 농민 노조를 만들려고 평생 노력한 사람이다. 세뽀베다가 1997년에 에콰도르를 방문했을 때 원주민의 현실은 참담했다. 당시 에콰도르와 페루,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지에 거주하는 농민과 인디오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학살하는 광경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어떤 대지주나 신부, 사업가도 그 모습을 보고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달은 “땅도 없고, 빵 한 조각에 뭐든지 다 쫓어지고, 길거리에서 살다 죽어가는 사람”(HM, 74)들을 위해 노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비달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침내 노조 결성에 성공한다.

비달은 늘 불쌍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힘을 가지게 도우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세뽀베다는 이 사나이야말로 <평생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브레히트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HM, 76)

세뽀베다는 이러한 ‘소리 없는 영웅들’의 삶이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인다고 믿는다. 그는 “자기가 먹을 빵은 스스로 정당하게 벌어서 먹는 사람들의 존엄성”(HM, 142)을 알리고 싶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고통은 우리를 마비시키지 못 한다”(HM, 142)는 사실을 주변인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맨손으로 파타고니아 숲을 구하려했던 아르헨티나 남자 루카스, 독재의 탄압을 받는 모든 청년들을 자식으로 여긴 우루과이 여인 까밀라, 1940년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나 22년 동안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부활을 알린 독일 남자 프리츠 니만트, 몰매를 견디며 노조를 창설한 에카도르 남자 비달, 실수로 칠레에 와서, 실수로 결혼하고, 실수로 행복해서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탈리아 남자 주세페 등이 그런 인물들이다. 국적도, 직업도, 나이도 다양하다. 망명생활 중, 민주화운동 중 혹은 일상생활 중에서 만나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반독재 운동, 정의사회 실현, 약한 자를 위한 삶, 가난한 자를 위한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훈훈한 인간애와 박애정신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은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후에 환경운동에 투신한 세뽀베다의 삶의 궤적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 생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뽀베다는 많은 인물들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단지 개인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의미와 덕목마저 기억한다.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이는 그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소환해서 온전히 재생시킴으로써 그들의 핵심적 가치관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인 것이다. 이 순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소외된 인물이 아닌 것이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로 재탄생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뽀베다가 글을 쓰는 이유인 것이다.

아쉬워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처럼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세뿔베다는 라 모네다 궁에 남았던 사람들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많은 영웅들이 있음을 기억한다. 이들은 “숭고하고도 정의로운 이상 외에는 돌아갈 어떤 조국도 없는 영웅들, 애당초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진정한 영웅들”(HAA, 46)이다. 그래서 세뿔베다는 그런 평범한 ‘영웅들’을 기억에서 소환하면서 당시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작은 영웅들의 저항정신은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증언한다.

세뿔베다는 친구 프레디 따베르나를 생각하며 그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는 세뿔베다와 생년월일이 똑같은 칠레 친구다. 그 친구는 아따까마 출신으로 산림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1973년 9월 16일, 군사 쿠데타 발발 3일 만에 군인들이 그를 이끼계 변두리의 별판으로 데려가 살해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학생 대표이자 사회주의 국가의 군인으로 합법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유죄”(HM, 83)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스스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를 목청껏 노래 부르며 기꺼이 총알 세례를 받았고, 아따까마 사막의 어느 곳에 파묻혔다. 그는 아따까마 사막의 꽃과 같은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 세뿔베다는 그를 기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프레디 따베르나의 삶의 의미와 경이로운 저항정신을 계속 기록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기억하는 것이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망명 생활 중 베네치아에서 만난 여인들을 통해서도 칠레 빼노체프 쿠데타 이후 벌어진 고문의 참상을 기억한다. 증언자들은 검은 머리 여인과 금발 여인, 두 명이다. 그녀들은 어느 날 밤, 붕대로 두 눈이 가려진 채 집에서 끌려나와 칠레의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비야 그리말디라는 지하 감옥에 구속된다. 이후 그녀들은 “죽은 시간”(HM, 152)이자 “정지된 시간”(HM, 152)을 보낸다. 그녀들은 온갖 구타와 전기고문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 “침묵을 지키고, 유니폼을 입은 개망나니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저항하며 끝까지 버티는

것”(HM, 152)이 그들의 의무였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이후 그녀들은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일에 종사한다. 검은 머리 여인 까르멘 아녜스는 시인이고, 금발 여인 마르시아 스캔틀레버리는 신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시와 기사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그 두 사람은 영혼의 친구들답게 아직도 “사랑과 생각이 모두 반항적인 소녀들”(HM, 153) 모습을 하고 있다. 세뿔베다는 역사의 상흔을 굳건하게 이겨낸 개인들의 위대한 승리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고문으로 보냈지만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지금은 소녀의 밝은 웃음을 터뜨리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칭송한다. 비극적 역사를 집단이 아닌 개인의 기억이란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 본의 아니게 침묵을 지켜야 했던 세뿔베다는 14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칠레로 돌아온다. 삐노체프 정권 종말 이후다. 그가 귀국한 이유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잔혹한 그 시대의 흔적”과 “민주주의를 향해 더딘 발걸음을 옮기던 조국의 모습”(HAA, 8)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세뿔베다는 조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회의적이었다. 칠레가 독재자를 쓰러뜨리고 민주화를 회복한 것은 시민들의 투쟁정신이 아니라 ‘체념’과 ‘포기’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뿔베다는 국가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 범죄자들의 이름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추궁한다. 그러면서 “칠레에서의 민주주의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구실”(HAA, 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범죄를 숨겨주는 알리바이 정도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세뿔베다가 본 칠레는 독재시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작가가 바라던 세계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군부 독재 후 칠레 사회의 절망스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어느 사진 속 칠레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이다. 세뿔베다는 독일 망명 중이던 8년 전 사진작가 안나 페터젠이 보여 준 사진 속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함에 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명 생활 후

칠레로 돌아와서 처음 찾은 곳이 시골 마을 라 빅토리아다. 사진 속 아이들이 살던 마을이다. 그곳은 “산티아고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이자 억압과 고통의 상징”(HAA, 10)이었다. 그 곳에서 사진 속 아이들을 만나 같은 곳에서 사진을 촬영하길 원했다.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며 시간의 흐름과 공백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라 빅토리아에 들어서자 마주친 사람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무기력함, 그리고 늘 여유롭고 밝았던 모습을 이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깊게 배인 권태감이 낙인처럼 깊게 새겨져 있다. (HAA, 12)

아옌데 정권 때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들이다. 삐노체프 정권 당시 혹독했던 시절의 경험 때문이다. 주민들은 삐노체프 정권의 잔혹성을 고발한다. 그들에 따르면, 정부는 마을 중앙광장을 파괴 분자들의 접선장소라는 이유로 바닥을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주변을 철망으로 둘러친 후, 불심 검문에서 잡힌 사람들을 모두 여기에 가두었다.(HAA, 18) 마을 중앙광장을 강제 수용소로 바꿔 버린 것이다. 마을 청년들이 경찰에게 충격을 한 보복으로 사람이건, 개건 고양이건, 움직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총을 난사했고, 집과 건물에 수류탄을 퍼부어 요람에 있던 갓 태어난 아기마저 죽이는 사건도 있었다. (HAA, 17) 삶에 찌든 마을 사람들은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조차 귀찮아할 정도였다.

8년 만에 만난 사진 속 아이들의 변화도 충격적이다. 사진 속 천사 같은 미소는 온 데 간 데 없었다. 어둡고 불안한 표정들이었다. 가장 노릇을 하던 마르코스는 배고픔을 못 참고 시장에서 먹을 걸 한 봉지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 숨졌다. 그 때 나이 열다섯 살이었다. 헨리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하루 한 끼 챙겨먹고 연명하고 있었다. 쎄실리아의 큰 오빠 마우리시오는 소년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빠블로는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인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나마 공부를 하는 호르헤는 공업학교에 다니며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학업을 마치면 칠레를 떠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가기를 원

한다고 한다. 열일곱 살인 세실리아의 말은 절망적이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살고 싶었어요. 이다음에 크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멋진 일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꿈이 없어요. 꿈꾸는 게 오히려 두려울 정도예요. 그래 봤자 화만 나거든요. 어차피 다 허튼 생각일 뿐이니까요.(HAA, 25)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절망적이다. 칠레의 미래가 절망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해야 할 유년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 얼굴에선 웃음꽃이 사라지고, 가슴 두근거리던 꿈마저도 절망과 악몽으로 뒤바뀌어 버린 지난 8년의 세월”(HAA, 27)은 모두에게 큰 공백을 남겨 두었다.

사진에 남겨진 빈자리는 조국이라는 이름하에 망각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사람들과 이처럼 미래를 꿈꿀 자격조차 빼앗긴 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자들도 민족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 화해하게 되리라.(HAA, 28)

마르코스가 남긴 빈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함’이 자리하지 못한다. 역사적 ‘망각’과 허울 좋은 ‘민족 화해’라는 수사만 남을 뿐이다. 고통 받는 민중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이야기만 유효할 뿐이다. 권력자들의 언어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자들의 탓으로 돌릴 뿐이다. 소수의 지식인들은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파고들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윤리이자, 세기 말의 도덕 원칙”(HAA, 10)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목살당하고 만다.

결국 세벨베다는 무기력과 냉소의 수준을 벗어나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분노는 마침내 현실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세벨베다는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 저항정신을 가다듬게 된다. 결국 라 빅토리아의 방문은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분노가 그의 저항정신의 촉매제가 된 것이다.

세벨베다는 레지스탕스 정신을 존중한다. 그래서 레지스탕트를 존경한다.

의연한 삶의 자세가 숭고하기 때문이다. 그는 유대인 시인 아브라함 슈츠케버를 통해 저항정신의 중요성과 의미를 배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슈츠케버가 유대인 격리 구역에서 곡괭이질을 하는 순간 두 동강 난 채 계속 꿈틀대는 애벌레를 보고 지은 시를 통해 ‘희망’과 ‘저항’을 배운다.

두 동강 난 애벌레가 네 조각이 났다.
 한 번 내려치자 네 조각으로 붙어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내 손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란 말인가?
 그때 어두침침했던 내 영혼에 다시 햇살이 내리비쳤다.
 희망이 내 팔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애벌레조차 곡괭이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는데,
 너는 애벌레보다 못하단 말인가?
 (HM, 36)

네 동강 나고도 꿈틀대는 애벌레를 본 시인은 자신의 모습이 애벌레보다 못한가라는 자괴감을 느낀다. 시인은 학살 후 그 구덩이에서 살아났다. 두려움이나 고통보다 강한 이성, 분노보다 강한 지성의 힘으로 저항하며 버티고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하며 마침내 전설적인 레지스탕스가 된다. 세뿔베다는 그로부터 저항정신을 배웠다고 회고한다. “꿈을 꾸는 우리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한다”(HM, 38)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세상을 억누르던 군부 독재 시절의 저항방법은 단순할 수 밖에 없었다. 밤에 <모스크바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고 까디야 올레프스카야의 <들으라, 칠레여>라는 프로그램을 들을 뿐이다. 그 프로를 통해 국내 정세와 반파시스트 활동 상황, 동지들의 신변 문제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취합하는 것이다. 서슬 퍼런 독재 권력 하에서 모든 이들이 숨죽이던 시절 가능했던 유일한 저항의 방법이였다. 그러나 저항정신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고 동지들의 연대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다.

세뿔베다는 저항의 수단을 글쓰기로 결정한다.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글로 남겨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현실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할 목적

이다. 그에게 글쓰기는 곧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하기’다. 세펠베다는 브라질 작가 주앙 기마랑이스 호자가 말한 “이야기하기가 곧 견디는 것이다”⁷⁾라는 말을 믿는다. 자신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말해주는 독자 덕분에 신나서 이야기했던 것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는 힘이 되었고, 또 그 견뎌내는 힘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이야기하기는 곧 글쓰기이며, 글쓰기가 곧 저항의 방법인 것이다.

IV. 역사, 기억 그리고 글쓰기

세펠베다는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한 가지는 앞 II장에서 언급한 대로 세펠베다가 독일의 베르겐 벨젠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돌맹이에 새겨진 문구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 있었고, 아무도 내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다. 그 문구를 보고 <과거 역사를 절대 잊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자>(세펠베다 2005a, 10)는 다짐을 되새기게 된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수치스런 역사와 함께 역사에서 소외된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로 결심한 것이다.

또 다른 동기는 ‘분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마침내 나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경직된 의식과 언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잘 알지만, 이 이야기를 글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HAA, 28)

그는 망명 시절 경험한 여정으로 칠레뿐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이 ‘절망’과 ‘체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본주의체제의 폭력성이 강화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조국 칠레 민중의 삶도 군부독재로 인해 더

7) Entrevista con Teresa Sala. *POSTdata*. “Luis Sepúlveda: Trato de dar a mi literatura la misma carga ética que empleo para enfrentarme a la vida”. 2016.7.4.
<https://postdata.elkar.eus/luis-Sepúlveda-historia-de-un-perro-llamado-leal-entrevista/>

피폐해졌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는 그의 의식을 유연하게 만들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의 언어를 치료할 방법을 터득하게 만들었다. 그 언어를 치료할 유일한 방법은 “분노, 아니면 행동”(HAA, 8)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사실들을 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앞으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비록 현실 바로 보기는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추악한 현실 속에 비쳐지는 ‘진실’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뿔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국 나의 글쓰기는 불편한 선택이 될 뿐일 것이다.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또한 우리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보일 것이며,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짓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되비추는 잔인한 거울에 불과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거울 너머 저 편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HAA, 28)

현실 속 거울이 비추고 있는 진실을 똑바로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각’에서 벗어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세뿔베다 글쓰기의 궁극적 목표다. 과거의 참상을 잊어서는 ‘야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칠레 정치인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현대화의 비용’이라고 치부하거나 망각이 국가를 지배하는 스페인이나 독일의 예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세뿔베다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칠레 국기의 문장(紋章)에 명시된 <이성 아니면 힘으로>(Por la razón o la fuerza)라는 문장을 제시하면서 칠레에서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세뿔베다는 어쩔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지켜야만 할 상황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제 그는 글쓰기로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글쓰기의 기본 동력은 분노다. 『소외된 이야기』와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의 저변에 끓어오르는 뜨거움은 바로 분노의 열기인 것이다.

그렇다고 세뿔베다의 글이 마냥 진지하거나 무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유머와 위트가 곁들인 풍자적 글들로 독자에게 문학적 향기와 즐거움도 선사한다.

「개들의 생(生)」에서는 어느 수색건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공 권력의 맹목적 신념이 야기하는 폭력의 실체를 조명한다. 단지 발로 차는 남자의 발길질을 피하려다 바짓가랑이를 찢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상해죄로 고소된 개 ‘치끼또’는 결국 18년간이나 수감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가해 권력이 피해자의 저항을 폭력이라 규정하며 자유를 박탈하는 구조적 폭력의 현상을 재미있는 우화로 재생한 것이다. “치끼또는 절대로 그를 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HAA, 123)는 이 항변은 패배자들, 소외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한 세뿔베다의 외침이 아닐까 한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들을 말이다. 세뿔베다는 이 흔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부정의식”으로 글을 써야하며, “21세기의 작가는 비공식적인 역사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⁸⁾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식적인 역사 즉, 이긴 자들이 쓴 조작의 역사”(HM, 17)를 거부하고, “세상을, 그리고 사회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던 자들의 문화와 기억,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랑스러운 과거”(HAA, 131)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쉽게 사기꾼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넘어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HM, 17)을 지적하며 ‘역사 바로 알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뿔베다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누군가 그 글을 읽는다는 것은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뿔베다는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쉬워한다. 자신의 말이나 글에 책임을 지는 언론인이 드물고 이 세상의 등불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의 죽음을 인식하는 기자가 만드는 신문이 이제 거의 없는 실정을 개탄한다. (HAA, 95) 기자는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뿔베다는 진정한 언론인 상을 보여 준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을 떠올

8) 정철훈. “칠레 작가 세뿔베다: 21세기 작가는 비공식적인 역사에 더욱 주목해야”. 국민일보. 2005.05.23. <https://news.v.daum.net/v/20050523054437753?f=o>

린다.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이유로 페노체프에 의해 감금된 후안 빠블로 가르데나스, 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페노체프에 의해 살해된 뻬뻬 까라스코, 펜을 무기로 아르헨티나 독재 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로돌포 왈시,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파헤치다 ETA에게 암살당한 호세 루이스 로베스 델 라 까예가 그들이다.(HAA, 93)

세뿔베다가 기자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현실참여형 작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에 직접 참여해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도 소설가로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대중의 힘을 믿는 것이다.

변화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때 얻어진다. 소설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해야 가능하다. (...)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여다. 참여해야만 급진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⁹⁾

세뿔베다는 대중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국제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칠레 민중들의 웃음을 찾아주는 데 세계인들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글을 쓴다. 세뿔베다는 글의 힘을 믿는다. “글로 적은 문장은 힘을 싣고 결속력을 준다”(HM, 74)는 비탈 산체스의 말을 믿기 때문이다. 세뿔베다에게 글쓰기는 곧 ‘이야기하기’다. 세뿔베다가 체념과 절망 속에서도 추구하던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찬 미래의 언어”(HAA, 97)가 바로 ‘이야기하기’다.

세뿔베다는 현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우리가 살펴본 두 작품의 모든 이야기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다. 한 개인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결코 편협하거나 좁지 않다.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그것이 세뿔베다

9) 최성일. “자연친화적이고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민중문학가, 루이스 세뿔베다”.
<http://ch.yes24.com/Article/View/12456>

의 글의 힘인 것이다.

그는 경험과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그 세부를 들여다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포착할 뿐 아니라 과거의 기억, 더 나아가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망각>으로 뒤덮인 세계에서 더듬거리며 <집단적 기억>의 지도 그리기. 따라서 세뿔베다에게 <이야기하기>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삶을 고정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흐름을, 궁극적으로 역사적 흐름과 미래의 흐름을 포착해 내려는 것이다.(세뿔베다 2010, 281)

세뿔베다가 기억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상은 결국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당 그렇게 되었어야 했던 세계, 즉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던 세계의 모습”(HAA, 39)이다. 경험적인 사실 너머의 세계에 있는 진실의 세계, 희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뿔베다가 비록 분노에 의한 글쓰기로 군부독재시절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 전망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다. 과거, 현재를 거처서 미래를 향해가는 희망의 이야기다. 그는 “좌절과 환멸이 지배하던 시대에 우리를 불러 모아 놓고 원칙과 신념, 즐거움을 잃어선 안 된다”(HAA, 98)고 독려한 작가 마리오 베네데띠를 기억하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꿈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처럼 살아가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미래를 상상”(HAA, 115)한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 지닌 정당한 권리”(HAA, 39)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V. 맺음말

세뿔베다의 작품은 내용 전개도 어렵지 않고 단순하며 빨리 읽을 수 있다. 분석한 두 작품 『소외된 이야기』와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는 이야기의 분량도 짧고 간결하여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면서 독자들의 흥미도 자아내는 매력 있다. 그러나 글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다. 두 작품

은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선거로 이룩한 사회주의 정권이 페노체트 군부 쿠데타로 무산된 후 망명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세플베다는 기억을 증시한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시간이 멈추어 버린, 절대 변하지 않는 세계이다. 테레사 성녀의 가슴이나 로제 바딤의 영화처럼 썩지도 않지”(Sepúlveda 2017, 42) 때문이다. 그는 <잊지 말라, 용서하지도 말라>는 말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HAA, 42) 그래야 당당하게 현실을 마주할 수 있으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세플베다는 “진정한 화합이란 과거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생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모두가 피해자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¹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플베다는 칠레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각국과 유럽의 역사까지 짚어가면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하며 소환한다. 2005년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그는 소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유명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업적과 공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내가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소설을 통해 이름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어요.¹¹⁾

세플베다의 의도대로 그의 작품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즐거운 삶을 누릴 권리를 아예 박탈당한 사람들,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꿈꾸는 이들”(HAA, 97)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기억한다. 공식 역사의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간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시민들과 군부독재 정권에 끝까지 저항했던 인

10) “조국이 버린 이야기꾼, 세플베다”. <https://blog.naver.com/openbooks21/50088690980>

11) 허연. “루이스 세플베다”. 매일경제. 2017.4.7.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7/04/237334/>

사들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그들의 이념과 삶의 의미, 정의감과 분노를 인정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세벨베다의 글쓰기는 항상 현실에 바탕을 둔다. 그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그는 상상 속의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글감을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리얼리즘 작가다. 나는 현실을 좋아하고, 현실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실은 항상 마술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현실의 마술을 찾아내는 것을 즐긴다.¹²⁾

개선되지 않은 칠레의 현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그의 글은 뻔노체프 군부 독재 시절의 혹독한 시절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추적과 미행은 물론 비인간적인 고문이나 폭력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망각을 두려워하며 이들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한다.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일이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¹³⁾ 때문이다.

세벨베다가 두 작품을 쓰기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은 체념, 절망 그리고 분노였다. 그래서 <소외되고 일그러진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라는 의미 있는 구조가 두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가 바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 저 너머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미래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12) *El País*. Madrid. 2009.04.03. Entrevista con Luis Sepúlveda.

https://elpais.com/cultura/2009/04/03/actualidad/1238770800_1238775841.html

13) Luis Sepúlveda resalta “la importancia de conocer el pasado para comprender el presente e imaginar el futuro”. Europa Press. 2009.5.6. <https://www.europapress.es/andalucia/sevilla-00357/noticia-luis-Sepulveda-resalta-importancia-conocer-pasado-comprender-presente-imaginar-futuro-20090506153039.html>

참고문헌

- 그레고리 베이트슨(2017), 『마음의 생태학』, 박대식 역, 책세상.
- 정철훈(2005), “칠레 작가 세폴베다: 21세기 작가는 비공식적인 역사에 더욱 주목해야,” 국민일보(2005.5.23.), <https://news.v.daum.net/v/20050523054437753?f=o>.
- 최성일(2005), “자연친화적이고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민중문학가, 루이스 세폴베다,” <http://ch.yes24.com/Article/View/12456>.
- 허연(2017). “루이스 세폴베다,” 매일경제(2017.4.7.),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7/04/237334/>.
- “조국이 버린 이야기꾼, 세폴베다,” 열린책들 공식 홈페이지(2010), <https://blog.naver.com/openbooks21/50088690980>.
- Grice, Paul(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nco, Jean(1985),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Barcelona: Editorial Ariel S. A.
- Perus, Françoise(1980), *Literatura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el modernismo*, México: Siglo XXI.
- Sepúlveda, Luis(1989), *Mundo del fin del mundo*, Barcelona: Tusquets Editores.
- _____ (1996), *Historia de una gaviota y del gato que le enseñó a volar*, Barcelona: Tusquets Editores, 유왕무 역(2002),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 바다출판사.
- _____ (1999), *Un viejo que leía novelas de amor*, Barcelona: Tusquets Editores.
- _____ (2000), *Historias Marginales*, Madrid: Editorial Seix Barral, S.A, 권미선 역(2005b), 『소외』, 열린책들.
- _____ (2002), *Hot Line*, Barcelona: Ediciones B, 권미선 역(2005a), 『핫라인』, 열린책들.
- _____ (2010), *Historias de aquí y allá*, Barcelona: La otra orilla, 엄지영 역(2010),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 열린책들.
- _____ (2017), *La sombra de lo que fuimos*, Barcelona: Espasa Libros, 엄지영 역(2009), 『우리였던 그림자』, 열린책들.
- Zamora, Margarita Montserrat(1982), *Language and history in the ‘comentarios reales’*, Yale University.

Fonseca, Rodrigo Díaz(2012), *Transformaciones y resistencias de la economía campesina Mapuche*, Madrid: Editorial Académica Española.

Navarrete, Federico(2014), *Mapuches*, México: Nostra Ediciones.

Baeza, Edgardo Ulloa(2012), *Globalización y comunidades Mapuches*, Madrid: Editorial Académica Española.

“Luis Sepúlveda resalta ‘la importancia de conocer el pasado para comprender el presente e imaginar el futuro’,” Europa Press(2009.5.6.), <https://www.europapress.es/andalucia/sevilla-00357/noticia-luis-Sepulveda-resalta-importancia-conocer-pasado-comprender-presente-imaginar-futuro-20090506153039.html>.

“Entrevista con Teresa Sala,” *POSTdata*, “Luis Sepúlveda: Trato de dar a mi literatura la misma carga ética que empleo para enfrentarme a la vida,” 2016.7.4. <https://postdata.elkar.eus/luis-Sepulveda-historia-de-un-perro-llamado-leal-entrevista/>.

“Entrevista con Luis Sepúlveda,” *El País*, Madrid(2009.4.3.), https://elpais.com/cultura/2009/04/03/actualidad/1238770800_1238775841.html.

“Luis Sepúlveda,” https://www.biografiasyvidas.com/biografia/s/Sepulveda_luis.htm.

유왕무

배재대학교
wmyoo@pcu.ac.kr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7일

Looking for the memory of marginalized and distorted historical reality – A study on the works of Luis Sepúlveda –

Wang-Moo Yoo
 Paichai University

Yoo, Wang-Moo(2020), “Looking for the memory of marginalized and distorted historical reality – A study on the works of Luis Sepúlveda –”,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2), 107-131.

Abstract Luis Sepúlveda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Chilean politics, human rights, and social issues through various genres. The author has worked as a member of UNESCO and Greenpeace to solve the acute problems of mankind. Therefore, while dealing with historical realities, he links them to modern universal political and social issues. His two works, 『Marginalized histories』 and 『Histories of here and there』 focus on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through memories of alienated and oppressed figures and episodes related to them. These works mainly illustrate anecdotes related to “the unknown heroes” rather than historical figures. It’s a story about little heroes who are unknown to us but deserve applause. Sepúlveda claims that we should not forget them. He argues that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a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sent and envisage the future. The two work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discuss a critical outlook on marginalized and distorted historical reality. What the author actually wants, however, is not despair and frustration, but a world of dreams and hopes. Beyond the world we have experienced, he builds a future where universal human values are recognized.

Key words Luis Sepúlveda, 『Marginalized histories』, 『Histories of here and there』, Memory, Resistance